

“농수축산물 유통단계 5~6단계를 2~3단계로 축소”

aT 홍문표 사장, “농어촌, 농어민(축산인)이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드는 데 앞장설 것”

홍문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6단계로 복잡한 농수축산물 유통단계를 2~3단계로 줄일 것



홍문표 사장

최하를 열어 많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들으며 유통구조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홍 사장은 K-푸드 수출 전담 기관의 수장으로 “농수축산물 수출은 식품 영토확장”이라고 강조했다. 비아호로 지구촌 시대에 대한민국의 우수한 농수축산물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판로를 확대해 농수축산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한편 “식량은 무기”라고 강조하며, “안보 개념으로 현재 쌀에 편중된 우리나라 식량 관리체계를 주요 식량작물인 5곡(쌀, 밀, 콩, 옥수수, 보리) 육성체계로 전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해 CA 저장 기술 등을 활용한 저온비축·유통체

계를 구축해 장기저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한 생산사업 확충과 농어민의 안정적인 생산대책 마련에 협력 중”이라며, “특히, 공사 주체로 구성된 기후변화 특별 TF팀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사장은 마지막으로 “농계농업을 실현해 생산 유통 가공의 안정성 확보와 예측가능한 농수축산물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농어촌·농어민(축산인)이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20일 aT 제20대 사장으로서 취임한 홍문표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 대책위원장 △물관리한국대표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특히 4선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축산물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된다.

한편 국민들은 “기후위기에 인한 농업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때에 있는 만큼 농수축산물유통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는 것을 명심하고 저온 저장창고 확대설치 등을 통해 변동된 기후위기에 농산물 저장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0만호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 코엑스 B홀에서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24 스마트비즈엑스포'를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2024 스마트비즈엑스포’ 개최

중기부·중기중앙회 등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 전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서울 코엑스 B홀에서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을 전시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2024 스마트비즈엑스포'를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연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중기중앙회·삼성전자 등이 공동주관하는 동 행사에는 생활가전, 식품·음료, 생활용품, 기계설비, 산업용품 부품소재 등 업종별 중소기업 99개사가 참여했다.

개막식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정윤보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박

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달관 동남성정위원장 등이 참석해 특별 테마관 구매상담존 등을 방문하며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의지로 스마트 제조혁신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4개의 특별 테마관(△교차협력관·2관 △혁신관 △수출관) 전시,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구매상담존, 생방음으로 실시간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현장리포트, 상생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김옥기기자

농진청, 국내 실정 맞는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나왔다

영양균형 갖춘 반려동물 개·고양이 사료 제조 기술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반려동물 사료 산업 제도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내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서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료 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이미 미국 등 외국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표준을 제정하고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사료관리협회(AAFCO)는 반려동물 사료의 영양학적 적합성을 보장하는 지침인(가이드라인)을 마련, 적용하고 있다. 유럽

펫푸드산업연합(FEDIAF)도 제품에 '완전 사료'라는 유형을 표기하려면 별도 영양 지침안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영양균형에 근거한 사료의 개념이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사료의 등록 유통 과정에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완전 사료'임을 입증하는 데 고려할 별도의 영양기준이 없는 실정이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반려동물(개와 고양이) 사료 영양표준을 설정하기 위해 한국축산학회 반려동물영양연구회와 국내외의 사료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외의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를 거쳤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청, 새만금 개발 동력 확보 위한 전문가 포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23일 서울 투자진사관서 사파리 국가정원 조성 방향을 주제로 네 번째 '새만금 개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9월부터 격주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속 가능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사파리 분야 전문가인 삼정KPMG 서정대 이사와 함께 사파리 트렌드 해외 사파리 조성 사례 등을 공유, 새만금 사파리 조성 컨셉, 운영 방안 등에 다양하게 논의했다.

서정대 이사는 발제 서두에서 “사파리 조성은 동물 중심적 관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파리 트렌드는 기존 케이지(Cage)형 동물 전시에서 벗어나 서식지 그대로를 구현하고 동물 복지에 우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나라현 시승공원과 케냐 나이로비 기린호랑 등 해외 사파리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새만금의 드넓은 부지와 우수한 생태자원을 적극 활용



한국식품연구원, '2024 식품기술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백형희, 이하 식풍연)은 지난 22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 위치한 본원에서 2024년도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6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한국식품연구원 식품기술대상은 국내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포상하여 식품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총 11개의 제품이 수상, 예를 인안다. 기술대상 부문에서는 △과학교육정보통신부 장관상에 개별급속동결기술로 최자의 식감을 구현한 한우물 유부어제 김밥(농업회사법인(주)한우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에 밀가루와 황설글루텐을 첨가하지 않고 국내산 쌀로 만든 제로밀 글루텐 프리 쌀식빵(주)탈탈떡) 등 총 2개 제품을 수상했다.

금상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상에 난소화성 식이섬유를 활용한 로로고추장(미주), △특허청장상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